

社說

포천시민대중

포천시민대중 제작을 둘러싸고 찬반논란과 종 명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민대중은 포천시가 시승격을 기념하고 포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종을 제작하기로 하고 2005년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9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에 나섰다. 각 읍면동별 순회 안내를 통해 시민대중 제작의 당위성과 모금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장이 종 제작을 구상했고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포천시장은 지난해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민대중 제작 명분과 실익이 없어 초기 추진위원들이 많이 이탈했을 뿐 아니라 시민대중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포천교육청에도 협조를 의뢰해 포천교육청은 각 학교에 종제작 기금마련을 위한 동전모으기 운동을 하기로 하고 협조공문을 의뢰했다.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구했다. 이렇게 하여 8월 현재까지 모금한 시민대중 제작기금은 5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까지 종 제작을 완료하고 재야의 종을 포천시민대중으로 올리겠다는 제작추진위원회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포천시민대중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은 포천시민사회가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오는 9월2일 찬반토론회 성격을 띠며 될 만민공동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이해조분화하는 시민대중제작을 전제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계몽운동 차원의 자유종 추진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것도 포천시민들의 여론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는 이를 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시민대중제작을 위한 명쾌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뜻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대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천시와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의 포천시민대중 제작추진과 관련해 지난 1월11일 창립한 이해조분화하는 포천시민대중 제작을 추진하되 종 명칭을 100년 전에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했던 이 고장 출신 이해조 선생의 역작 '자유종'의 작품명을 그대로 따 자유종을 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해조분화하는 오는 22일 '포천에 자유종을 울리기 위한 일만명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8일 포천시민대중사무실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시민대중제작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대중제작 찬반토론회를 할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의 만민공동회를 오는 9월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성된 반대대책위는

나가지"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은 포천시민이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주부명예기자단 임원들이 분기별로 10만원씩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주부명예기자단은 물론 포천시민대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주부명예기자단이 솔선수범하여 동전을 모아 나갈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건물 정화조처리, 포천 관내 고등학교 진학 관련 뉴스, 인도위에 세워진 돌간판 처리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불우이웃돕기 분기별로 10만원씩 기탁키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9차 임원회의에서 의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지난 11일 오전10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기와 제2기 단장 이취임식과 전임 단장에 대한 최호열 발행인의 감사과 전달, 주요안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임경순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정론지 포천신문이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매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며 "각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각 지부를 활성화하여 기사발굴은 물론 친목도모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1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9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광릉수목원 개방해야 포천경제 살아난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서 밝혀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현)는 지난 11일 오후 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릉수목원을 개방해야 포천경제가 살아난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모해 나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자동기체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가산면사무소에 마산삼거리까지 인도위에 세워진 주차 차장을 이동시켜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郷土원로초대석 ⑨ …… 용연서원 원장 楊基成



양기성 용연서원 원장

"돈은 생활에 필요, 죽을때는 벼룩 한 벌이면 족하다"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원장은 미3사단 민사처리과에 근무하게 된다. 정식 사관학교는 아니지만 보병학교를 졸업하고 장교에 임관된다. 양 원장은 정보관으로 경비 대대가 해산될까지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이후 초등군사반을 나와 6사단에 배치되고 장교생활 6년만인 29세에 군복을 벗고 1년동안 금주리에서 농사를 지었다. 1년후에 경기도 잠업시험장에 근무하게 된 양 원장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30대에 영종면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당시 면장은 늘 작업복 입고 농민 지도사업이 주요업무였다고 한다. 6년동안 영종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퇴하고 농지개발조합에 입사했다. 10년동안 농지개발조합에 근무했다.

양 원장은 30년간 유림활동을 했다. 유교에 대해 양 원장은 "사람을 신의에 의해서 바로 만드는 길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유교에서는 참된 사람을 만드는 것, 즉 교화사업을 중요시여긴다. 용연서원 감사 8년동안 학생들에게 한문교육에 나섰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영종중학교와 금

주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한자를 교육하기도 했다.

한문은 사자소학, 예절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양 원장은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단데 최근 핵가족화로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양 원장은 굳이 옛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현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을 봐도 과거의 행정은 주민의 속속까지 다 알아 처리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백리가 아쉬운 시대다. 그것은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되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낭비하고 당선되면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청백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양 원장은 "돈이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죽어 저승 갈 때는 벼룩 한 벌이면 된다"고 한다.

"자손대대로 올바르게 사는 길"을 좌우 명으로 삼아 살아온 양 원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3천여평의 농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양 원장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자를 통해 학문을 하고 책을 만들어왔는데 요즘 한자를 쓰지 않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사언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 길명사를 지난 1988년에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 양 원장은 포천에 있는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원장의 문화재 사랑과 한문 사랑, 그리고 향토사랑의 정성을 포천시가 받아내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물포커스

한희준

한신단열 대표

"제조업 디스플레이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세중소기업의 도산은 볼듯 뻔합니다." 포천을 설립된 456-6번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친환경적인 화학제품 PE폼을 생산하고 있는 한신단열 한희준(52.사진) 대표는 현 경제상황을 이렇게 진단한다.

1977년12월21일 창업한 한신단열을 포천에는 지난 88년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 생산에 주력해왔다. 한신단열이 생산하는 제품은 불량제품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향상됐다.

처음 사업을 시작 했을때는 작은 이익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욕심을 버리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직원조회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직원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등 의미 있게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포천신문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포천신문이 앞으로 더 지역정론지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이 된다면 약 2천여평에 기계설비투자도 새로운 발표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히는 한 대표는 30억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모 기업이 정부지원금 5억 원을 받자마자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태가 발생해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이같은 지원 기대는 꿈에 불과

배성호

주형산업 대표

모자 쉐싱 제조업체인 주형산업을 20여년간 이끌어온 배성호(58.사진) 대표는 새로운 제품개발이 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모자의 주요 소비자는 미국인들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늘 연구에 나서고 있는 배 대표는 우리나라 모자 쉐싱 제조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는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시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처음에는모자에 평행성이 유행했다. 1998년부터 개발한 것이 커브형성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커브형성에 식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 제품은 탄성작용을 억제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모자 쉐싱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쉐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 대표는 이 상품을 올 추석 전에는



제품가격을 올리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열을 보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잘 운영해 왔으며 늘 변함 없는 초심을 유지하는 포천신문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신문이 너무 지역적인 뉴스에 한정되지 말고 중앙뉴스도 지역에 걸맞게 다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주형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내기를 미국 바이어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국민은 스스로 불행해진다'

"포천신문은 포천의 보물이요 보석이다"

영세업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한다.

"眞實"을 사훈으로 삼아 회사를 이끌어온 한 대표는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국민은 스스로 불행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진정한 영웅이 없고 존경받을 대상이 없어진 불행한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다.

포천신문에 연재하는 석혜승 스님의 글처럼 자연처럼 살아가라. 낮은데로 임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표는 현대인의 심계명중에서 따지나? 라는 첫 번째 계명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한다.

논쟁, 비판의 중심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좀더 자제하고자 하나 불의라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포천신문 초대 자문위원으로서 한 대표는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송년의 밤 행사 대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도 하고 불편한 것도 편하게 해주는

하다는 것을 안다.

미국에서는 공해발생 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공장을 지어주고 차츰 상환해 나가도록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을 영세기업체가 직접 투자해 건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표는 포천신문이 포천지역에서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다. 중앙일간지는 포천사회에 대해 포천신문처럼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다. 오직 포천신문만이 지역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포천신문은 포천에서 보석, 보물이다. 경제세력으로도 역할도 중요하다. 관공서의 횡포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 대표는 초등학교 전학년 반장, 고등학교 학생회장, 대학교 학생회장 등 지도역할이 자연스러워 늘 해아픔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남들에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제품 개발만이 세계시장에서 살 길이다"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는 포천신문에 감사'

시장에 내용을 계획이다. 탄성작용을 억제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험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거의 80% 완성단계도 도달했다며 제품을 보여주는 배 대표에게서 신제품 개발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물건을 생산해 판매했으나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뒤이어 공장을 설립한 베트남 호치민시 공장은 그대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배 대표는 모자 쉐싱 제작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했다. 가산면 공장에 해, 베트남에 2대를 설치하여 생산에 나서고 있다.

경북 영덕이 고향인 배 대표는 대구에서 모자 쉐싱 공장을 운영하다가 모든 물류의 중심지는 서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했다고 한다.

99%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형산업은 9·11테러사건으로 물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한다. 최근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비해

있으며 추석전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겠다는 배 대표는 아침 일찍 일어나 7시30분까지 회사에 출근한다.

출근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깊은 생각을 위해 현장을 수십번씩 돌아본다. 하루에 2~3km를 공장에서 걸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원인에 대해 배 대표는 "정치인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당리당리만 추구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

당리당리를 떠나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바라볼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이 잘사는 방법은 국내경제 활성화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

고 강조하는 배 대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은 부존자원이 상당한 나라다. 베트남에 거는 승부수에서 배 대표의 승리가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